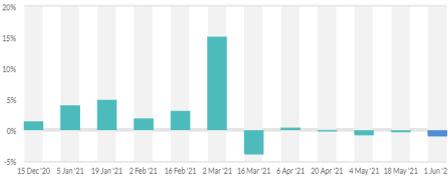




[가격동향] GDT 유제품 시세 4회 연속 하락세

- 전장대비 0.9% 하락...서유럽 수출가격은 상승세 이어가

Change in GDT Price Index



Summary of Results

Number of Winning Bidders	116	Number of participating bidders	165
Number of Bidding Rounds	13	Quantity sold (MT)	22,825
Duration of Trading Event (hours:mins)	1:56		
Minimum Supply (MT)	20,740		
Maximum Supply (MT)	26,470		

지난 6월 1일 실시된 GDT(세계유제품경매)에서 유제품 가격이 2주전 대비 0.9% 떨어지며 4회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격 지수도 1,276포인트로 전장대비 1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버터가 톤당 4,690달러(약 519만원)로 전장대비 5.4% 떨어지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지분유도 0.5% 하락하며 톤당 4,062달러(약 450만원)를 기록했고, 상승세를 이어가던 탈지분유도 톤당 3,415달러(약 378만원)로 0.5% 떨어졌다. 반면, 체다치즈 가격은 0.5%

오른 톤당 4,324달러(약 479만원)로 2회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북반구 주요 원유생산 국가의 원유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유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임에 따라 당분간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한편 지난 5월 28일 USDA가 발표한 서유럽 유제품 수출가격은 2주전 대비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는 각각 1.6%, 1.9% 올랐고, 버터는 2.8%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출처 : globaldairytrade.info, 6월 1일, USDA, 5월 28일자 >

[과학기술] 밀웜 단백질, 우유 성분과 동일하다는 연구결과 나와 - 네덜란드 연구진 발표

- 우유 단백질만큼 소화력과 흡수력은 물론 근육 형성 및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말린 밀웜을 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네덜란드에서 밀웜 단백질이 우유 단백질만큼 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 연구진이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밀웜에서 추출한 단백질이 우유 단백질과 동일한 소화력과 흡수력을 가지고 있으며 근육 형성은 물론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유와 근본적으로 다른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대체우유와 달리 밀웜 단백질은 우유에 함유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밀웜이 우유의 품질과 동일한 미래의 지속가능 단백질 식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고 설명했다. < 출처 : prnewswire.com, 6월 1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